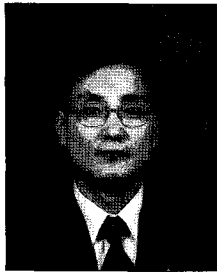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현황과 해외진출 지원



양 국 보

KOTRA 해외사업개발팀 팀장
☎031-3460-7691 yangkb@kotra.or.kr

〈필자약력〉

- 1987 서울대 사회교육과 졸업 • 1990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2005 헬싱키대 경영학과 졸업 • 현재 KOTRA 해외사업개발팀장
- 2005~2008 LA KBC 근무 • 2000~2003 산토도밍고 KBC 근무
- 1994~1997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근무

CDM(청정개발체제) 개요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3가지 교토메커니즘(배출권 거래제도, CDM, 공동이행제도)에 의해 국제적인 탄소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는 탄소세를 통한 조세정책보다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정부,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등이 경제적 유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CDM제도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국가의 기업

등이 비부속서I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감축 실정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특히 CDM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그 실적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 ETS)에서 CDM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의무준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 각국, CDM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나서

CDM 프로젝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각국은 다투어 CDM 프로젝트 개발에 나섰다. 현재 UN에 등록된 CDM 프로젝트는 1,515건으로 감축규모는 연 2억7천6백만톤에 달한다. 중국(485), 인도(408), 브라질(156), 멕시코(113), 말레이시아(44), 칠레(31), 한국(25)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개도국의 CDM 프로젝트는 주로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고있는데 CDM 프로젝트 최대 등록국인 중국의 예를 보면 전체 485개 프로젝트에 영국(190개), 네덜란드(108개), 스위스(96개), 일본(76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CO₂배출수준은 6.3억만톤(2008년)으로

ENVIRONMENTAL SPECIAL EDITION

세계 10위 수준이며, OECD국가 중 CO₂배출 증가율 1위로 향후 감축의무대상국 지정 등 강도 높은 감축 요구가 예상된다.

포스트교토 체제에서 우리나라에 감축의무가 부여되면 산업여건상 국내의 감축노력만으로는 의무이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CDM사업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에 사업 대상이 많다. 또한 국내 환경 관련 법규가 높은 수준이므로 CDM사업의 기준인 추가성(Additionality) 입증에 어렵다. 그리고 국내 인건비 및 자재비등의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하면 해외 CDM 프로젝트 진출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CER 생산단가는 톤당 일본 234불, 미국 153불, 유럽 198불로 매우 비싸지만 아직까지 개도국에는 톤당 20불 이내로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매우 많다.

우리기업들은 한국이 2013년부터 감축의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해외 CER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시장진출이 요망된다.

적극적으로 해외 CDM 프로젝트 진출에 나서야

2009년 3월 기준 CDM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영국이 535건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후 스위스 393건으로 2위, 일본 187건, 네덜란드 185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9년 3월 기준 1,540개의 CDM프로젝트가 UNFCCC에 공식 등록되었다. 발행된 CER은 2억7천만 톤의 CO₂이다. 국내 CDM프로젝트는 2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예상 CER은 1천5백만 톤이다. 대표적으로 2005년 11월에 등록한 울산 로디아사의 N₂O감축사업, 2007년 4월 CDM 프로젝트로 등록한 수도권 매립가스 자원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로디아사의 N₂O감축사업에는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가스 자원화 프로젝트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단독으로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국내기업 중에는 한국전력, 에코프론티어, 에코아이, KM Green, POSCO 등이 해외 CDM프로젝트를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과 연계한 CDM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8월 동서발전의 동해 화력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건을 유엔에 등록해 10만톤의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성산 풍력발전 사업 등 8건의 신규 사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배전 부문에서는 육불화황 가스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CDM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0년 8월 유엔 등록을 목표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의무감축국 대상국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전까지 에너지 효율 기술,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아직은 등록된 CDM사업을 통해 받은 크레딧(CER)을 수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향후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경우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해외 CDM 프로젝트 진출을 통해 목표 감축량을 채워나가야 한다. 만약 등록된 CDM으로부터 발생한 CER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KOTRA,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중

KOTRA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2월 그린통상지원단을 출범시키고 CDM을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린통상지원단은 녹색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CDM 프로젝트 발굴 및 해외진출지원을 3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통상지원단을 통해 해외 95개 KBC (Korea Business Center, 舊 무역관)를 본사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CDM 프로젝트 발굴 및 PF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해외 녹색 정보 수집, 선진기술 도입 및 전문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녹색산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 선진기업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KOTRA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CDM 프로젝트 발굴 및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금년 1/4분기 중에만 동남아, 중남미 등 전략 진출지역을 중심으로 100여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 기업에 전파하였다. 지난 4월초에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Green Hub Korea Week 2009'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 103개사

와 국내 녹색산업 관계자 약 1,000여명의 상담을 주선한 바 있다. 'Green Hub Korea Week 2009'에서는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의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총 135건 122억불 상당의 상담을 하였다.

앞으로도 KOTRA는 국내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CDM 프로젝트 진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된 "동아시아기후 파트너십" 사업과 같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사업타당성(F/S) 조사 및 Pilot Project 진출지원을 위해 유무상 ODA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업들이 해외 진출초기에 겪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안내

구 분	미국 올랜도 수처리 전시회 (WEFTEC 2009)	프라하 수처리 및 환경기술전 (Aqua-Therm Prague 2009)
개최기간	2009. 10. 10 ~ 10. 14	2009. 11. 24 ~ 11. 28
장 소	올랜도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	Fair Grounds Prague
개최규모	268,408sqf	22,860m ²
전시품목	수처리시설 및 관련부품, 가정, 산업용 급수 설비, 정수기, 연수기, 상하수도 분야 밸브, 수질관련 계측기	수처리, 환경설비, 위생, 열관리, 제어계측, 냉난방, 공조기기, 급배수, 배관설비 등 환경관련 산업 전반
관람예상인원	20,000명(전문바이어)	40,000명(일반관람객포함)
과년도 전시현황	전시업체수 : 1,111업체 전문바이어 : 20,000명	전시업체수 : 1,306업체 참관인 : 220,000명
한국관 참가규모	10업체(1,100sf)	8업체(96m ²)
행사주관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
참가업체 지원사항	참가비 등 일부 국고 보조	참가비 등 일부 국고 보조
주요활동 사항	-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관 설치·운영 -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 환경설비·기술·제품 홍보 및 바이어 상담 - 양국간의 환경산업의 기술교류 확대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환경기술 세미나 발표	

* 참가문의 :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처 ☎ 02-2249-5265 교환 617, 658)